

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저수지 자연재해 비상대처 훈련

2025-05-21 09:52 수정



지난 20일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용풍저수지에서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을 실시했다. 2025.5.20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는 지난 20일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용풍저수지에서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을 실시했다.

시 안전총괄과, 관내 파출소 및 소방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집중호우에 따른 가상의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훈련이 진행됐다.

저수지 월류와 제당 붕괴 등의 재난상황을 가정하고 단계별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주민대피 및 응급복구 등의 훈련이 실전처럼 이뤄졌다.

이번 활동은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공사와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종태 지사장은 “용풍저수지는 이천시를 대표하는 저수지로 평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저수지의 경우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만큼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비상대처 훈련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상시 안전점검 등 재난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